

SM-3급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 예산 신규편성에 대한 평통사 의견

- 2023년 예산(정부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 심사 자료에 SM-3 도입사업 예산 100억 원이 포함된 사실이 언론보도(YTN, 2022.11.17)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심사 자료에 따르면 장동혁 위원(국민의힘), 정희용 위원(국민의힘), 강대식 위원(국민의힘)은 예산 신규편성 의견의 근거로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층적인 다층방어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SM-3급) 도입 소요를 긴급 소요로 전환하고, 2023년 내 사업착수를 위하여 신규 반영 필요”를 적시했습니다.
- 그러나 북한의 SLBM 위협 등에 대응하고, 다층방어를 구축하기 위해 SM-3 요격미사일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허구적인 주장입니다. SM-3 요격미사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데 무용지물이며, 오히려 일본과 미국 방어에 동원되고 예산 낭비만을 초래하는 백해무익한 사업입니다.
- 이에 SM-3 도입사업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오니 적극 검토해주시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익을 지키고 예산낭비를 막아주시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 위원들에게 요청 드립니다.

1. 북한의 SLBM 위협 등에 대응하고, 다층방어를 구축하기 위해 SM-3 요격미사일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허구적인 주장입니다.

- 북한은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수백기 이상 보유하고 있어 굳이 작전적 제약이 큰 SLBM으로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SLBM은 미일의 대북 공격을 억제하고, 억제가 실패했을 경우 보복하기 위한 전략무기로, 북한이 이를 남한 공격에 사용하여 미일에 대한 전략적 지렛대를 상실하는 전략적, 작전적 오류를 범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상식 밖의 이야기입니다.
- “실층적인 다층방어 구축”도 전혀 현실성 없는 주장입니다. 다층방어는 비행시간이 최소 10분 이상 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적용 가능한 개념으로 중심이 짧아 수분 내에 미사일이 도달하여 요격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한반도에서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 AP통신(2017.5.17)도 과학자와 미사일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일본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과 이지스함의 SM-3 요격미사일, 여기에 사드까지 배치하더라도 “다층 방어 전략이 신뢰할 만한 미사일방어 체계인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일본까지의 탄도미사일 비행 거리와 시간은 남한까지의 비행거리와 시간에 비해, 지역에 따른 편차는 있겠지만, 최소 2~3배에 달해 남한보다 다층방어에 훨씬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다층방어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 없다는 것은 남한 다층방어는 애초부터 불가능함을 말해 줍니다.

2. SM-3 요격미사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데 아무런 효용성이 없습니다.

- SM-3 요격미사일은 고도 100km 이상의 외대기권에서 상대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무기체계가 아닙니다. 현재 유력한 도입 기종인 SM-3 블록 IB 요격미사일은 요격고도가 150~500km입니다. SM-3 블록 II A 요격미사일은 요격고도가 1,450km에 달합니다.
- 그러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정점 고도가 100km보다 낮아 SM-3 요격미사일로 요격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가 수도권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KN-02(사거리 120~160km) 미사일은 정점고도가 40km에 불과합니다. 또한 사거리 300km의 스커드 B도 정점고도가 100km 이하에서 형성되어 요격이 불가능하고 사거리 500km의 스커드 C의 정점고도는 150km에 이르나 대부분의 비행이 100km 이하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SM-3 요격미사일로 요격할 시간이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 북한이 최근 개발한 KN-23/24/25 신형 미사일도 정점 고도가 100km 이하에서 형성됩니다. KN-23(사거리 240~690km)의 정점고도는 20~60km, KN-24(사거리 230~410km)의 비행 고도는 30~50km, KN-25(사거리 380km)의 정점고도도 97km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SM-3 요격미사일이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데 아무런 효용성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 무엇보다 한반도는 남북 간 거리가 짧아 2~5분이면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남한에 도달하므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통상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에는 최소 90초가 소요되나 한반도는 산악지형이 70%에 달해 북한 탄도미사일을 조기탐지하기 어려우며, 설령 탐지하더라도 요격에 필요한 시간이 거의 주어지지 않아

미사일방어체계는 무용지물입니다.

- 이와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과 미국 미사일방어청도 공동연구(2011~2012)를 통해 “한반도에서 PAC-3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밝혀졌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 의회보고서(2015.4)도 남북으로 길이가 짧은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상 “한국에선 미사일 방어가 효용성이 낮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3. SM-3 요격미사일 도입은 한국 방어가 아닌 북한이나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부터 일본과 태평양미군, 미 본토를 방어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 SM-3 블록 IB 요격미사일은 요격고도가 150~500km, SM-3 블록 II A 요격미사일은 요격고도가 1,450km로 북·중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상승/중간/하강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군이 SM-3 요격미사일을 도입하면 일본, 오키나와 괌 등에 주둔하는 태평양 미군, 미 본토를 겨냥한 북중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동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이 아닌 일본과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도입, 운용되는 것입니다.
- 또한 SM-3 요격미사일 도입은 사드(THAAD) 배치와 함께 한국을 미국 MD에 전면 편입시킵니다.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태평양 미군과 미국을 겨냥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상승단계부터 조기탐지, 추적하여 그 정보를 미 태평양사령부와 전략사령부에 제공하고, SM-3 요격미사일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상승단계와 중간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M-3 요격미사일은 사드 체계와 함께 정보와 요격 양 측면에서 한국을 미국 방어를 위한 미국 MD 체계에 전면 편입시키게 됩니다. 한국이 미국 MD에 전면 편입되면 한미일 MD 구축과 이를 토대로 한 한미일 동맹 구축도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4. SM-3 요격미사일 도입은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를 초래합니다.

- 국방부는 이미 광개토-III Batch-II 이지스 구축함에 장착될 SM-6 도입에 7,6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SM-3 요격미사일의 가격은 SM-3 블록 IB의 경우 한 발당 약 115억 원, SM-3 블록 II A의 경우 한 발당 약 452억 원에 달합니다(2023년 미 국방예산 기준). 도입예산만 최소 수천억 원에서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 전혀 불필요한 사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끝)